



2012년 3월 7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김정훈 ☎ 3276-6230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계량분석 | 노근환 ☎ 3276-6226
파생상품 | 안 혁 ☎ 3276-6272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투자전략

이란을 누를 것인가, 유가를 누를 것인가

• 이머징마켓 동향

상해지수 이틀 연속 약세, H지수 3% 하락
중국 全人代의제의 특징 및 시사점은?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현대차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NHN 외 6종목

• 산업/기업분석

전기,전자 , 반도체
고려아연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2/27(월)	02/28(화)	02/29(수)	03/02(금)	03/05(월)	03/06(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91.16	2,003.69	2,030.25	2,034.63	2,016.06	2,000.36
	등락폭	-28.73	12.53	26.56	4.38	-18.57	-15.70
	등락종목	상승(상한)	275(19)	383(1)	542(7)	497(7)	298(13)
		하락(하한)	570(4)	450(10)	289(2)	316(0)	530(5)
	ADR	110.63	106.87	107.42	106.48	104.10	99.11
	이격도	10 일	98.84	99.46	100.75	100.78	99.90
		20 일	99.58	100.09	101.24	101.33	100.29
	투자심리	50	60	60	70	60	50
	거래량	(백만 주)	629	599	555	477	542
	거래대금	(십억 원)	5,479	6,256	6,709	5,761	5,058
코스닥	코스닥지수	538.34	540.35	542.30	543.97	539.74	533.62
	등락폭	-5.80	2.01	1.95	1.67	-4.23	-6.12
	등락종목	상승(상한)	310(22)	463(19)	567(12)	556(24)	366(21)
		하락(하한)	668(4)	514(3)	383(0)	399(1)	592(6)
	ADR	109.86	108.26	107.34	107.95	105.61	103.89
	이격도	10 일	99.70	99.98	100.25	100.40	99.63
		20 일	101.37	101.50	101.65	101.75	100.80
	투자심리	70	70	70	80	70	60
	거래량	(백만 주)	671	767	742	670	620
	거래대금	(십억 원)	2,264	2,413	2,451	2,028	2,040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014.5	966.2	969.7	197.8	192.6	310.1	52.3	57.3	159.7	315.2
	매도	2,715.7	1,199.7	1,080.1	161.6	172.1	344.7	38.8	57.8	305.1	270.1
	순매수	298.8	-233.5	-110.4	36.1	20.5	-34.6	13.4	-0.5	-145.4	45.2
	03 월 누계	256.6	88.2	-248.3	73.1	75.3	-235.2	-8.9	-13.1	-139.5	-96.5
	12 년 누계	-6,674.4	10,607.4	-2,631.6	804.6	575.6	-3,000.0	200.4	266.3	-1,478.5	-1,301.4
코스닥	매수	2,379.6	72.8	66.4	5.4	10.0	26.2	5.9	2.5	16.5	17.8
	매도	2,360.2	73.0	77.5	12.3	16.6	23.9	4.6	6.6	13.5	26.0
	순매수	19.4	-0.2	-11.0	-7.0	-6.6	2.4	1.3	-4.1	3.0	-8.2
	03 월 누계	100.4	7.5	-81.8	-9.9	-14.0	-46.0	-5.7	-6.2	0.0	-26.1
	12 년 누계	445.9	6.8	-97.4	-28.8	39.4	-174.5	11.4	-28.9	84.0	-355.2

이란을 누를 것인가, 유가를 누를 것인가

3월 월간 밴드	1,900-2,050pt
2012 연간 밴드	1,650-2,250pt
12MF PER	9.6배
12MF PBR	1.14배
Yield Gap	6.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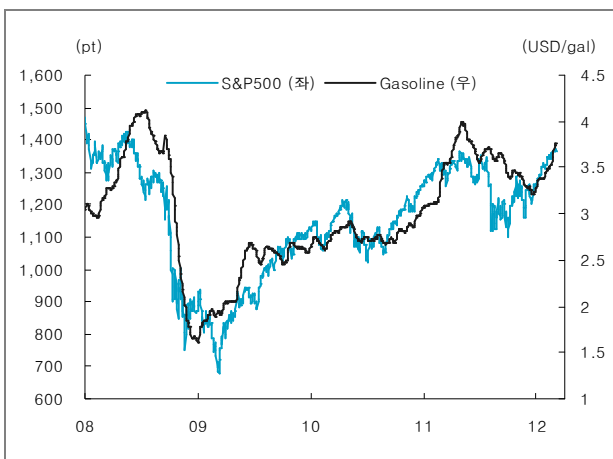
- ▶ 미국 국민들은 가솔린 가격 상승에 대해 오바마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
- ▶ 이란에 대한 강경노선은 보수세력 공격을 막고 유태인 표심 잡기에 유리
- ▶ 그러나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오바마에게도 미국에게도 유리하다고 보기 힘들어

■ 가솔린 가격 상승, 누굴 탓해야 하나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국
가솔린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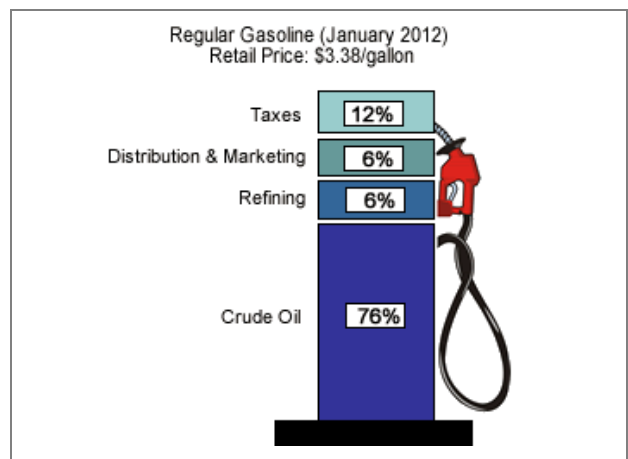
최근 상승세를 보인 국제 유가와 함께 미국 내 가솔린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5일 미국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76달러를 기록했다. 가솔린 가격의 상승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 기대감을 상쇄시킬 수 있다. (2월 16일 당사 시황 “가솔린으로 보는 불편한 진실” 참조)

[그림 1] 미국 내 가솔린 가격 및 S&P 500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미국 가솔린 가격 구성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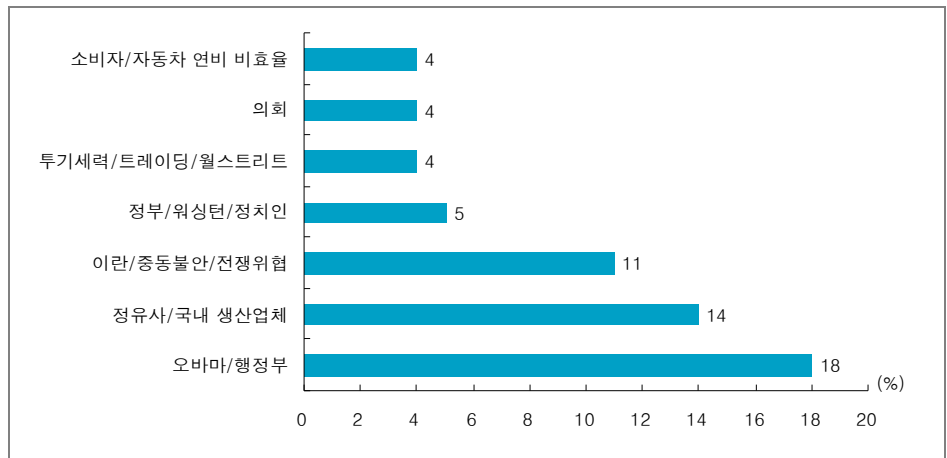
가솔린 가격의 상승배경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솔린 가격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3/4이 넘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도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최근 미국 대이란 제재로 심화된 긴장감, 글로벌 유동성, 유럽 흑한 등을 원인으로 꼽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언론에 가장 크게 보도되는 것은 역시 미국과 이란간의 긴장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가솔린 가격 상승을 오바마
탓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커

일반 미국 국민들은 가솔린 가격의 상승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할까. Pew Research Center와 Washington Pos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및 행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란이나 중동불안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1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설문조사: 가솔린 가격 상승, 무엇 때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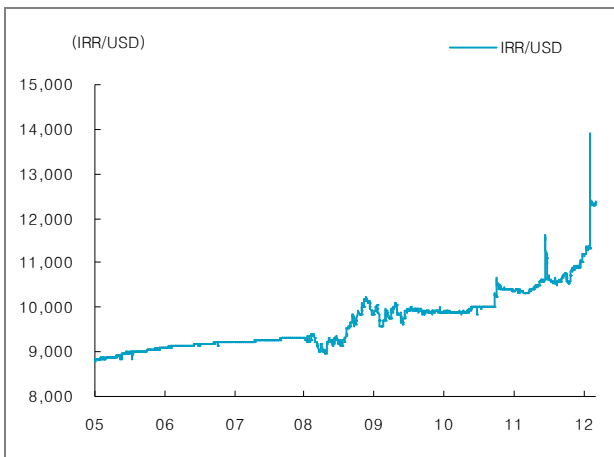
자료: Pew Research Center, Washington Post, 한국투자증권

■ 대선을 앞둔 오바마에게 이란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국민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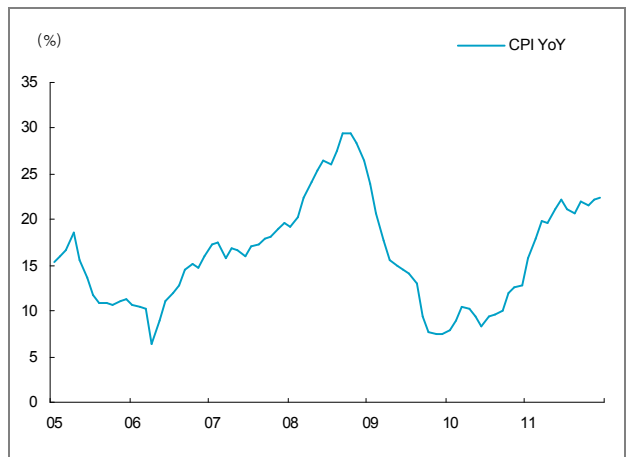
이란은 리알화 가치의 급락과 함께 물가도 급등하면서 경제적 붕괴에 가까운 상황이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조치에 대한 금수조치에 대해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 위협으로 대응했다. 이는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경제위기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이란 리알화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이란 CPI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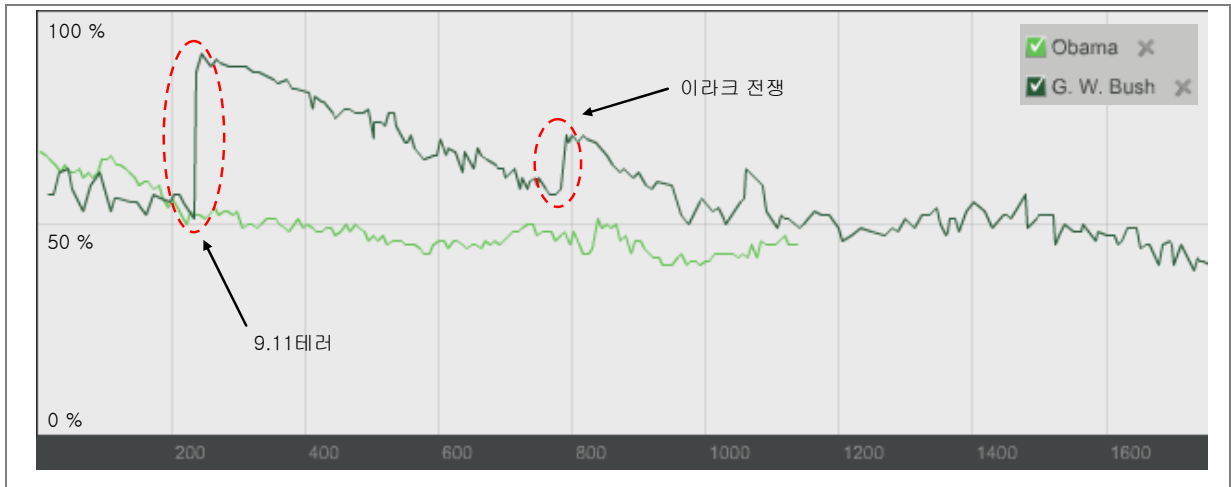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이란 변수를 대선의
관점으로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란’ 변수를 연말에 있을 대선과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Gallup에 따르면 현재 오바마의 지지율은 50%에 채 못미치는 수준이며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재선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란’은 어쩌면 오바마가 남겨둔 카드였을 수 있다. 조지 W 부시의 대통령 재임시절을 살펴보면 9.11사태 직후, 그리고 이라크 전쟁 같이 국가 안보가 위협을 당하거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지지율이 수직상승한 바 있다.

[그림 6] 오바마와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이후 지지율 추이 비교



주: X축은 대통령 재임 일수, Y축은 지지율
자료: Gallup, 한국투자증권

**이란에 대한 강경노선
표방은 선거 전략으로
유용**

작년말 이란 원유 금수조치는 표면적으로 이란을 고립시켜 결국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위 ‘악의 축’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명분이다. 이는 오바마의 선거전략으로도 매우 유용하다. 이란에 대한 강경노선을 표방함으로써 미국 보수 세력의 ‘이란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겨냥한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유대인들의 표심 뿐만 아니라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유대계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도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다.

■ 현 상황은 미국에게도, 오바마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그러나 현 상황은 녹록치
않음**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란 이슈가 오바마의 재선에 도움이 될지도 확실치 않아 보인다. 먼저 50%에 못미치는 지지율은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치솟는 가솔린 가격의 상승에 대한 책임을 (오바마가 바라는 것처럼 이란 등 외부로 돌리기 보다는) 오바마에게 돌리고 있다. 한편, 버르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재정부담이 큰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5일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이란 해법에 대한 시각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민심이 좋지 않고, 무력충돌
미국 개입 시 악영향 불가피**

**타이밍 뿐만 아니라 이란
문제의 대응 방식 자체가
의문시 되기도**

이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 자체가 이란 핵프로그램 중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 Guardian지의 칼럼니스트 Simon Jenkins는 “이란에 무력 위협을 하는 것은 멍청한 것이며, 오히려 이란 내 강경파들의 입지만 강화시킬 뿐”이라며 “외부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정권이 국내적으로 비난을 받아 지지기반을 잃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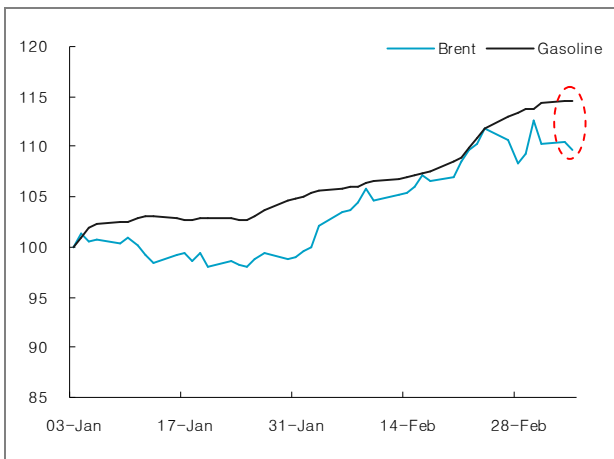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크게 부담

이란으로부터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이 크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도 민심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다. 실제로 연초부터 현재까지 원유가격의 상승폭에 비해 가솔린 가격의 상승폭이 크다. 이는 정유사들이 가격을 빠르게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유사들에게 “전쟁은 악재지만, 전쟁 루머는 호재”라고 말하기도 한다.

가솔린 가격 안정은 선거와 미국 경제 모두에 중요한 이슈. 오바마도 수수방관 할 수 없는 시점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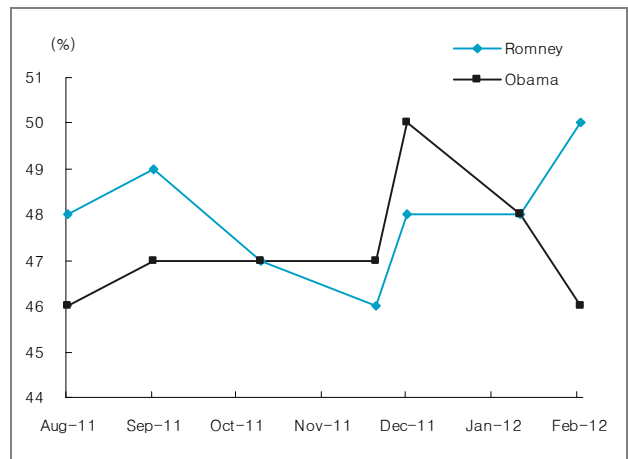
정유사들이 최근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공장을 폐쇄한 것이 가솔린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솔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민심 악화 및 소비여력 축소가 오바마와 미국 경제에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바마는 이란을 누를 것인가, 유가를 누를 것인가. 복잡한 국제 정치의 이해관계 속에서 방향을 잡사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오바마도 유가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시점에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림 7] 브렌트유 및 가솔린 가격 추이 (12.1.3=100)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오바마와 롬니 지지를 추이



자료: Gallup, 한국투자증권

[그림 9] 미국 가동 중단 정유공장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상해지수 이틀 연속 약세, H지수 3% 하락

- ▶ 중국 발개위, 지난해 CPI 상승률 5.4%로 목표치 큰 폭 상회, 올해 물가 관리 여전히 필요
- ▶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여파 및 상해시 부동산 구매 제한 강화로 상해지수 1.4% 하락
- ▶ 유럽 경기후퇴 우려 강화, 외국계 자금 이탈 우려로 홍콩 H지수 3% 넘게 하락

상해증시 이틀 연속 하락
경기민감주 및 정책데마주
큰 폭 하락

■ 중국 시장

전인대 개막 후 상해종합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약세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낙폭을 키우며 1.4% 하락세로 마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8년 만에 처음으로 7.5%로 하향된 데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부동산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발언이 지수 약세의 배경이었다. 중국 발개위가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으며 올해 물가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통화완화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켰다. 상해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구매 제한을 강화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시멘트, 석탄, 철강 등 경기민감주의 낙폭이 컸다. 전인대 정책 수혜업종인 환경보호, 농업 및 유틸리티 관련주도 차익매물 출회로 크게 내렸다.

■ 홍콩 시장

H지수 큰 폭 하락
기계, 광업, 건설자재업종
약세 주도

홍콩 H지수도 이틀 연속 큰 폭 하락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5개월 만에 경기분기점을 하회한 유럽 PMI 소식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됐다. 최근 위안화 약세 및 공매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차익실현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모든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고 기계, 광업, 건설자재 관련주가 가장 크게 내렸다. 은행 및 보험주의 약세도 두드러졌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3/6(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410.45	-1.41	-1.69	-0.74	9.59
홍콩 H	11,119.17	-3.06	-5.46	-5.98	11.90
인도 SENSEX	17,301.52	-0.35	-2.42	-2.54	11.95
러시아 RTS	1,716.26	-2.05	0.47	-1.08	24.20
브라질 보베스파	66,964.03	-1.21	2.64	1.75	17.99
베트남 VN	445.00	-2.67	5.40	5.04	26.58
MSCI 이머징마켓	1,065.30	-1.36	-0.33	-1.31	16.25

주: 6일 오후 5시 40분 기준

중국 全人代의제의 특징 및 시사점은?

■ 전인대(全人代) 개막, 주요 의제 윤곽 드러나

2012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全人代)가 개막된 5일에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가 중국정부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성장목표 및 정책은 이번 全人代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세부내용, 예산 등이 13일 폐막일까지 논의되게 된다. 5일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2012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代)에서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 정책목표 및 세부내용

2012년	2011년
정책목표: - 민생개선, 구조조정	정책목표: - 물가안정, 민생개선, 구조조정
세부내용: - GDP성장률 7.5%, 물가상승률 4%, 실업률 4.6% - M2증가율 14% (신규대출 언급 없음) - 재정지출 확대, 중립적 통화완화 - 내수 소비 촉진 - 물가안정 위해 공급 확대, 유통구조 개선 - 3농 문제 해결 위해 농업 현대화, 농촌 기반시설 확충 - 성장방식 전환, 산업 구조조정,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 과학기술 및 교육 선진화. 교육 지출 GDP 4%로 확대 - 민생보장, 신규 일자리 900만개 창출, 사회보장 개선 - 보장형주택 700만채 건설 - 문화산업 적극 육성 - 금융/세제 개혁 가속화 - 대외개방,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세부내용: - 12.5규획의 '포용성 성장' 구체화 방안 - GDP성장률 8%, 물가상승률 4%, 실업률 4.6% - M2증가율 16% (신규대출 언급 없음) - 재정지출 10.02조위안 - 물가억제, 부동산시장 안정, 민생개선 - 공공서비스 확대, 합리적인 소득분배 - 개인소득세 개혁 등 국민소득 증대 - 곡물공급 보장, 기상예측 수단 강화 - 7대 신흥전략산업 육성, 산업구조조정 추진 - 친환경 성장 기초 강화 - 보장형주택 1,000만채 건설 - 사회 및 민심 안정

자료: 현지언론, 한국투자증권

■ 증시에 새로운 영향 없을 것, 후속조치 기대 지속 및 기존 강세 가속 예상

全人代에서 발표된 중국정부의 올해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말에 정치 및 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중국 및 글로벌 증시에 큰 파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올해 성장률 목표가 7.5%로 하향 조정됐지만 중국경기의 하강과 함께 어느 정도 예상된 재료이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제한적일 전망이다.

올해 업무보고의 특징인 중립적 통화완화는 3월 하순~4월 초의 기준을 추가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민생보장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권의 신규대출이 곧바로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절감 가전에 대한 보조금지급, 소비의 달 지정 등과 같은 소비촉진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후속조치도 단기간에 발표될 것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3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종목/테마	내 용
삼성테크윈(012450) ▶67,200(+4.02%)	1분기 흑자전환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시현했던 반도체 부품 및 반도체 장비 부문이 1분기 적자폭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안 카메라 부문의 성장성이 부각되며 1분기 흑자전환 기대감이 확산되며 강세 - 아울러, IT 관련 부진사업의 구조조정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며 점진적인 수익성 회복 추세가 예상되며, 보안카메라의 수주 모멘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부광약품(003000) ▶14,200(+3.65%)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임상3상 완료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개발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BK-C-0701'의 3상 임상시험이 완료됨에 따라 내달 식약청에 신약 품목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 이 물질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치옥타시드'의 주원료인 치옥트산에서 일부 성분을 분리한 것으로 적은 양으로도 우수한 치료 효과가 있으며 안정성도 높음
휴비스(079980) ▶12,300(+7.89%)	인도 면화수출 중단 소식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가 국내 수급을 맞추기 위해 면화수출을 중단하기로 밝힘에 따라 면화가격 급등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급등세 - 당사는 합성섬유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면화가격 상승으로 일부 대체제 관계에 있는 화학섬유의 가격 상승이 기대. 카프로(006380, +5.31%), 케이피케미칼(064420, +3.64%) 동반 강세
3노드디지탈(900010) ▶1,240(상한가)	중국이 외국기업 희토류 채굴을 금지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금년 12월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희토류 등 희귀광물, 일회성 광물자원 채굴 및 탐사를 금지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 당사는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으로, 자회사인 하남3노드마크네슘개발유한공사가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며 수혜 기대감에 강세
LED 관련주	삼성전자의 LCD TV 생산 중단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가 LCD TV의 생산을 중단하고 LED TV만 생산해 판매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 - 인텍플러스(064290, +6.82%), 알에프텍(061040, +5.42%), 아이엠(101390, +5.29%), 루멘스(038060, +3.28%), 오디텍(080520, +2.67%) 등 강세
수처리 관련주	서울시가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가 토양과 지하수 오염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식에 강세 - 뉴보텍(060260), 젠트로(083660), 와토스코리아(079000, 이상 상한가), 한텍(076080, +8.10%), 시노텍스(025320, +6.29%), AJS(013340, +5.88%)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현대차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현대차 (005380)	216,500 (-4.4)	226,500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성장세 지속. 단기적인 실적 부진 우려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주목할 필요 해외 및 국내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 효과와 함께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개선세 지속 전망 브랜드 가치 제고와 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은 품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세를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골프존 (121440)	60,400 (+1.0)	59,800 (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크린골프 라운딩수 증가, 골프 시뮬레이터 신제품 출시, 네트워크 서비스 매출 확대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미국 골프스미스와의 제휴는 국내 골프용품 유통사업과 미국시장 진출에 기여할 전망 최근 증시 강세를 감안할 때 ELS와 관련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환입될 가능성 충분 GDR(Golf Driving Range)사업, 필드골프, 골프용품 유통 등의 사업 다각화,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과 기술력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 보유
성광벤드 (014620)	24,250 (+14.4)	21,200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수주잔고(1900억원)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매출로 인식되고 2분기 신규 설비가 가동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세는 가속화될 전망 대형제품 생산 효율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 구조 개선 기대 피팅산업이 과점적 구조이고 지금이 업황 사이클 상승 초입국면임을 고려 시 2013년 이후에도 사상 최대 매출액 경신이 이어질 전망
네패스 (033640)	18,050 (+18.8)	15,200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모바일 AP(Application Processor) 사업 수혜주로 WLP(Wafer Level Packaging) 영업이익 비중(연결)은 금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시스템LSI 투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LS (006260)	85,000 (+3.2)	82,400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 자회사들의 제련 및 외환이익에 따른 4분기 흑자전환 및 2012년 턴어라운드 기대 유효 LS산전과 LS전선의 보유 부동산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 가능성과 전력산업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
대덕전자 (008060)	11,900 (-0.4)	11,95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DRAM 및 NAND 기판에 사용되는 CSP(Chip Scales Package) 출하량 확대에 힘입어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확대에 따른 모바일 메인보드 기판(HDI; High Density Interconnection)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의 LTE 도입에 따른 장비 확충으로 MLB(Multi Layer Board) 또한 견조한 수주 모멘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대차, LS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골프존 발행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이며,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NHN 외 6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GS건설 (006360)	96,500 (-1.4)	97,900 (3/02)	9,951	563	419	8,465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진한 실적 가이드인스, '페트로라빅2' 프로젝트 발주 지연, 수주 모멘텀 약화 등 저성장 우려로 주가 약세. 지연되고 있는 '페트로라빅2' 프로젝트는 조만간 재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플랜트, 발전·환경 등 다양한 공종에서의 탁월한 시공 및 수주경쟁력과 오일샌드 EPC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을 주목할 필요 				
NHN (035420)	233,000 (+4.5)	223,000 (2/21)	2,374	720	533	12,634	1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광고 매출의 고성장과 신작 출시에 따른 게임 부분 매출 성장으로 2012년 매출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할 전망 - 모바일에서도 확고하게 높은 검색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 광고와 게임, 일본 포털 사업은 성장동력이 될 전망 -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게임 규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주주이익 환원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CJ CGV (079160)	27,300 (+4.8)	26,050 (2/08)	578	82	46	2,205	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다소 부진했으나, 3D 영화 개봉, 1월 영화 관람객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1분기 실적은 개선세를 보일 전망 - 좋은 위치 선점과 3D 등 차별화된 시설에 기반한 견고한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국내 매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중국법인 등 자회사들이 적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의 성장 잠재력 감안하면 자회사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 				
영원무역 (111770)	24,900 (-3.1)	25,700 (1/30)	1,101	193	141	3,461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경쟁력으로 인한 방글라데시 OEM 수요 확대와 Seller's market 형성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 스트리에 주목할 필요 - 선진국 및 중국의 아웃도어 의류 시장의 고성장세에 따른 수혜 및 니트 의류 및 신발/가방으로의 사업 다각화로 실적 안정성은 강화될 전망 				
엔씨소프트 (036570)	280,500 (-0.5)	282,000 (1/19)	837	279	230	11,621	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레이드앤소울 3차 CBT 실시 후 곧바로 OBT/상용화될 예정으로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 - 블레이드앤소울, 길드워2 등의 순차적인 해외 상용화와 성공 가능성을 감안할 때 기업 가치 개선 흐름은 안정적으로 지속될 전망 				
서흥캡셀 (008490)	14,100 (-9.0)	15,500 (1/2)	170	29	14	2,033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설 이전으로 인한 하드캡셀 매출 증가 및 F&P(Food & Pharmaceutical)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은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2012년 예상 EPS 기준 PER은 7배 수준으로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 상존 				
기아차 (000270)	72,000 (+8.3)	66,500 (1/2)	30,974	2,422	4,188	10,330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시장 매출 비중 확대, 'Value Car' 이미지 강화, 디자인 혁신, 원화약세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성장기조는 지속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NHN, 엔씨소프트, GS건설, 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GS건설, 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3월 한국투자증권의 IT 투자전략 : 3월 IT 업종의 Top Picks는 LG전자, 하이닉스

■ 1분기 PC 수요는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오히려 3월에 DRAM contract 가격은 상승 전망

우리는 1분기 PC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HDD의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심화되고 있어 DRAM contract 가격 상승 시점을 5월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엘피다의 파산보호신청 이후, DRAM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여 DRAM contract 가격 상승이 3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본다. DRAM contract 가격이 3월에 상승할 경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의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월에도 반도체 업종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여 하이닉스를 IT 업종의 Top Pick으로 제시한다.

■ 1분기에 실적모멘텀이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LG전자를 또한 Top Pick으로 추천

2월에 LG전자는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빠른 시간내에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LG전자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짐에 따라 KOSPI를 underperform하였다. 하지만 LG전자는 IT 대형주 중에서 1분기에 실적모멘텀이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휴대폰에서는 수익성 위주의 전략 채택으로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TV에서는 브랜드 개선으로 수익성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기록될 전망임에 따라 1분기 전사 영업이익이 회사의 가이던스(1,500~2,000억원)를 대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월에는 HTC를 long하고 LG전자를 short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

■ Second Picks로 제일모직, 삼성전자를 추천

Second Picks로 제일모직과 삼성전자를 추천한다. 제일모직은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이유는 화학과 전자재료부문 때문인데, 화학은 지난 4분기 고객들의 재고조정효과의 반작용으로 1분기 물량 증가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고, 전자재료는 편광필름의 적자폭 축소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화학제품의 원재료 가격 상승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기존 전망치를 다소 하회하겠지만, 갤럭시노트를 비롯한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휴대폰의 실적이 기존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2012년 연중 안정적인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LGD iPad3패널 공급 재개할 4월 반등, 삼성전기/LG이노텍/SDI는 보수적 투자전략 권고

1분기 LCD TV 수요는 전년대비 1% 증가(전분기 대비 31% 감소)로 여전히 약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북미에서는 소비 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춘절 TV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iPad3패널 매출이 지연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자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다. iPad3패널 공급이 재개될 2분기 초에 실적 및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 삼성SDI는 아이패드3형 폴리머타입 2차전지가 본격 납품됨에 따라 1분기 전사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하지만 SMD와 삼성LCD가 합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지분법평가이익의 계상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부품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LG이노텍은 애플의 카메라모듈 공급이 예상치를 상회하여 두 회사 모두 1분기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된다. 하지만 두 회사는 적용되는 valuation multiple에 부담이 있는 주가 수준으로 판단한다.

■ 3월은 IT 내에서 투자종목을 다변화해야 할 시기. LED는 모멘텀이 약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TV와 PC 수요가 약한 상황이 3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T 업체들의 주가흐름은 펀더멘탈 요소보다 news, event, 수급 등의 요인들에 더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측이 다소 불가능한 이러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생기는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정 종목들에 대한 편중된 투자 패턴보다 IT 내에서 투자종목을 좀 더 다변화해야 할 시기로 우리는 판단한다. 한편 LED TV의 보급율을 대폭적으로 상승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가 직하형LED TV의 첫 출시가 1분기가 아닌 2분기로 지연됨에 따라 LED 업체들에 대한 투자 모멘텀도 3월에는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3월 5일 당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반도체: 엘피다의 낙오 이후, DRAM 가격 상승 시작

■ DRAM 수요 부진에도 공급 요인으로 DRAM Contract 가격 상승 전망

1분기 중 PC 수요 부진 및 HDD 공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DRAM Contract 가격 상승 시점 전망을 이전 전망인 3월말 가격 상승보다 지연된 5월 이후 가격 상승(이전 보고서 참조, 2월 한파주의보: DRAM 수요 부진으로 가격 상승 지연, 2012년 2월 10일)으로 보았다. 하지만, PC 수요가 여전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엘피다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DRAM업체들의 DRAM 가격 상승 추진과 PC DRAM업체들의 DRAM 재고 확보 진행으로 3월 상반월 Contract 가격의 상승을 예상한다.

■ 엘피다 파산보호 신청에 따라, DRAM업체로 가격 Bargaining Power 이동

엘피다의 파산보호 신청에 따른 실질적인 가동률 조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여, 공급 감소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파산보호 신청 이후, 엘피다의 가격전략이 저가공세가 아닌 공격적인 가격 인상으로 선회하고, 향후 엘피다의 공급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엘피다의 공급 비중이 높은 PC OEM업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물량 확보가 최우선과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격 Bargaining Power가 강화되었다. 근본적인 수요 개선을 통한 가격 상승이 아닌 만큼, 향후 DRAM 가격 개선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는 점은 위험요인이다.

■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모멘텀 지속 예상

하이닉스는 엘피다의 파산보호신청 이후, DRAM Spot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3월 상반월 DRAM Contract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하이닉스는 DRAM의 프리미엄 제품 믹스 및 NAND의 원가경쟁력 회복을 통해 실적 개선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은 반도체사업이 모바일 DRAM 가격 하락, 14라인 생산제품 전환 등에 따라 다소 부진하지만, 갤럭시노트를 비롯한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정보통신이 보완할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전자의 목표주가 150만원을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3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고려아연(010130)

매수(유지)

목표가: 600,000원(상향)

종가(3/5): 418,000원

IT 산업으로 영역 확대, 더 강해진다

■ 전방 산업이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확대돼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 향상

목표주가를 600,000원으로 20% 상향한다. 현 주가대비 44%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인듐과 갈륨 수요 증가로 기타 금속의 매출액이 늘어 1) base metal 가격 등락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어 실적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2)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과 기술변화에 힘입어 성장성이 제고되며, 3) 2013년까지 EPS 증가율이 연평균 19%에 달해 목표 PER을 10배에서 12배로 올렸다. 가격 사이클도 중요하지만 IT 소재로 쓰이는 금속의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성을 주목해야 한다.

■ 기타 금속의 비밀을 파헤치다

주요 5대 금속(아연, 연, 금, 은, 동)을 제외한 기타 금속의 매출액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0.6% 증가했다. 성장률이 높지만 기타 금속의 가치는 정광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 이익률도 높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기타 매출액의 금속별 비중은 인듐이 43.3%, 황산이 11.5%, 갈륨, 카드뮴, 안티몬, 셀레늄, 비스무스 등은 2% 내외, 나머지가 3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기준 기타 금속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27.9%로 아연 29.8%, 은 27.9%와 유사하다.

■ 성장의 비통은 은에서 인듐과 갈륨으로 이어진다

인듐은 현재도 LCD와 AMOLED 소재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Oxide TFT 방식은 반도체막 재료로 인듐과 갈륨, 그리고 아연을 사용한다. 인듐 수요는 더욱 늘고, 갈륨은 디스플레이 소재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듐과 갈륨의 공급은 제한적이어서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EBITDA 증가로 풍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생산 능력도 늘릴 것이다. 매출액 비중은 낮지만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아 향후 이익 증가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09A	3,185	419	541	418	23,482	46.9	568	8.7	6.7	1.7	20.9
2010A	3,840	562	632	487	27,169	15.7	745	10.2	6.8	1.9	19.6
2011F	5,517	971	971	722	40,329	48.4	1,090	7.5	4.9	1.7	23.3
2012F	5,934	1,111	1,122	841	46,970	16.5	1,247	8.9	5.7	1.9	21.8
2013F	6,405	1,345	1,365	1,024	57,135	21.6	1,490	7.5	4.6	1.5	21.5

*상기 보고서는 2012년 3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2/27(월)	02/28(화)	02/29(수)	03/02(목)	03/05(월)	03/06(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91.16	2,003.69	2,030.25	2,034.63	2,016.06	2,000.36
	등락폭	-28.73	12.53	26.56	4.38	-18.57	-15.70
	등락종목						
	상승(상한)	275(19)	383(1)	542(7)	497(7)	298(13)	199(7)
	하락(하한)	570(4)	450(10)	289(2)	316(0)	530(5)	640(5)
	ADR	110.63	106.87	107.42	106.48	104.10	99.11
	이격도						
	10 일	98.84	99.46	100.75	100.78	99.90	99.24
	20 일	99.58	100.09	101.24	101.33	100.29	99.45
	투자심리	50	60	60	70	60	5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629	599	555	477	549
	거래대금	(십억 원)	5,479	6,256	6,709	5,761	5,058
	5,234						
	코스닥지수	538.34	540.35	542.30	543.97	539.74	533.62
	등락폭	-5.80	2.01	1.95	1.67	-4.23	-6.12
	등락종목						
	상승(상한)	310(22)	463(19)	567(12)	556(24)	366(21)	303(15)
	하락(하한)	668(4)	514(3)	383(0)	399(1)	592(6)	672(9)
	ADR	109.86	108.26	107.34	107.95	105.61	103.89
	이격도						
	10 일	99.70	99.98	100.25	100.40	99.63	98.62
	20 일	101.37	101.50	101.65	101.75	100.80	99.50
	투자심리	70	70	70	80	70	60
	거래량	(백만 주)	671	767	742	670	900
	거래대금	(십억 원)	2,264	2,413	2,451	2,028	2,516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014.5	966.2	969.7	197.8	192.6	310.1	52.3	57.3	159.7	315.2
	매도	2,715.7	1,199.7	1,080.1	161.6	172.1	344.7	38.8	57.8	305.1	270.1
	순매수	298.8	-233.5	-110.4	36.1	20.5	-34.6	13.4	-0.5	-145.4	45.2
	03 월 누계	256.6	88.2	-248.3	73.1	75.3	-235.2	-8.9	-13.1	-139.5	-96.5
	12 년 누계	-6,674.4	10,607.4	-2,631.6	804.6	575.6	-3,000.0	200.4	266.3	-1,478.5	-1,301.4
코스닥	매수	2,379.6	72.8	66.4	5.4	10.0	26.2	5.9	2.5	16.5	17.8
	매도	2,360.2	73.0	77.5	12.3	16.6	23.9	4.6	6.6	13.5	26.0
	순매수	19.4	-0.2	-11.0	-7.0	-6.6	2.4	1.3	-4.1	3.0	-8.2
	03 월 누계	100.4	7.5	-81.8	-9.9	-14.0	-46.0	-5.7	-6.2	0.0	-26.1
	12 년 누계	445.9	6.8	-97.4	-28.8	39.4	-174.5	11.4	-28.9	84.0	-355.2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은행	8,733	철강및금속	-19,996
운수장비	7,925	화학	-18,586
제조업	7,649	전기,전자	-17,056
삼성전자	13,266	LG화학	-17,425
현대모비스	9,411	LG전자	-12,426
기업은행	8,713	POSCO	-11,774
KT&G	7,649	SK이노베이션	-8,606
현대건설	7,479	하이닉스	-7,941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은행	7,891	전기,전자	-35,271
운수창고	5,296	화학	-30,148
제조업	1,111	유통업	-29,105
호남석유	8,844	LG디스플레이	-31,256
기업은행	8,128	LG생활건강	-15,961
삼성전자	5,797	SK네트웍스	-13,263
한국타이어	4,393	삼성증권	-10,588
한진해운	4,144	한화	-9,78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3,980	전기,전자	-4,826
통신업	1,568	유통업	-2,112
철강및금속	882	운수장비	-1,200
현대모비스	3,142	기아차	-3,692
삼성중공업	2,812	삼성전자	-2,859
KT	1,951	LG디스플레이	-2,616
제일모직	1,808	현대중공업	-1,758
삼성테크윈	1,504	아모레퍼시픽	-1,574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14,440	증권	-7,026
금융업	6,075	운수장비	-3,913
전기,전자	3,988	건설업	-3,261
삼성전자	8,965	LG디스플레이	-10,495
삼성엔지니어링	8,468	삼성전기	-8,316
LG전자	7,710	우리투자증권	-5,368
삼성테크윈	6,474	현대중공업	-3,299
하나금융지주	5,722	현대건설	-3,069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은행	18,961	전기,전자	-61,280
운수장비	17,873	화학	-43,477
서비스업	16,501	유통업	-34,457
삼성전자	22,211	LG디스플레이	-47,135
현대모비스	21,744	LG생활건강	-22,377
기업은행	19,202	삼성전기	-17,411
삼성엔지니어링	13,783	삼성증권	-16,890
한국타이어	11,980	LG화학	-16,151
NHN	11,837	SK네트웍스	-13,671
KT&G	11,064	하이닉스	-12,907
삼성테크윈	10,623	LG전자	-11,676
두산중공업	10,369	한국전력	-11,430
케이피케이칼	8,279	대우조선해양	-10,817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증권	9,201	서비스업	-55,529
전기가공업	5,176	운수장비	-51,039
종이,목재	358	전기,전자	-23,163
기아차	44,237	현대중공업	-35,784
LG생활건강	28,544	삼성전자	-25,892
LG디스플레이	15,168	하이닉스	-20,003
LG전자	13,556	POSCO	-19,173
아모레퍼시픽	9,620	삼성중공업	-17,370
한국전력	7,367	삼성엔지니어링	-17,297
우리금융	4,331	KT&G	-16,688
우리투자증권	3,555	기업은행	-13,736
대림산업	3,502	강원랜드	-13,406
한화	3,416	현대모비스	-13,21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2,688	반도체	-2,195
화학	1,584	섬유,의류	-1,211
사업지원	1,354	인터넷	-1,170
에스엠	2,741	웹크론	-1,211
와이솔	1,431	다음	-1,171
신화인터텍	1,231	유진테크	-923
파라다이스	869	알에프세미	-771
CJ오쇼핑	657	농우바이오	-740

전문기술	1,741	소프트웨어	-2,922
기계,장비	1,587	반도체	-1,385
출판,매체복제	1,180	IT부품	-192
CJ E&M	1,741	인프라웨어	-2,958
에스엠	1,180	파트론	-1,509
캠트로닉스	760	OCI머티리얼즈	-1,132
하나마이كرون	676	유진테크	-831
바이로메드	651	와이지-원	-490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음식료,담배	355	반도체	-2,175
방송서비스	355	기계,장비	-1,420
소프트웨어	224	IT부품	-1,198
CJ오쇼핑	392	서울반도체	-1,664
한글과컴퓨터	390	에스엔유	-553
하림	358	인터플렉스	-517
태광	274	에스에프에이	-379
OCI머티리얼즈	106	이녹스	-297

사업지원	915	반도체	-2,881
출판,매체복제	766	IT부품	-1,743
제약	655	디지털컨텐츠	-1,209
하나투어	898	OCI머티리얼즈	-1,764
로엔	625	CJ오쇼핑	-1,729
GS홈쇼핑	445	위메이드	-1,198
진성티씨	395	CJ E&M	-1,106
셀트리온	370	크루셜텍	-850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4,622	반도체	-9,358
사업지원	2,479	IT부품	-6,466
금속	1,549	소프트웨어	-4,025
에스엠	4,050	OCI머티리얼즈	-3,541
와이솔	1,789	서울반도체	-3,264
하나투어	1,737	인프라웨어	-3,176
평화정공	1,326	인터플렉스	-1,827
신화인터텍	1,325	유진테크	-1,645
파라다이스	1,284	다음	-1,640
성광벤드	1,141	파트론	-1,622
하나마이كرون	1,085	위메이드	-1,315
태광	845	웹크론	-1,211
GS홈쇼핑	735	농우바이오	-1,127

제약	1,900	반도체	-2,631
기계,장비	1,540	방송서비스	-2,544
도매	1,255	디지털컨텐츠	-1,959
셀트리온	2,538	OCI머티리얼즈	-2,354
성광벤드	1,749	CJ오쇼핑	-1,955
아가방컴퍼니	1,610	에이블씨엔씨	-1,226
유진테크	1,514	SSCP	-1,120
EG	1,115	서희건설	-993
젠텍스	1,115	메디포스트	-899
다음	1,050	네패스	-838
덕산하이메탈	1,021	AP시스템	-737
서울반도체	747	게임빌	-737
루멘스	713	주성엔지니어링	-73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대덕GDS	11 일	롯데삼강	30 일
SK케미칼	10 일	삼성카드	14 일
현대엘리베이	9 일	우리투자증권	13 일
삼성테크윈	7 일	한일이화	11 일
삼성생명	7 일	SK텔레콤	11 일
대우인태내셔널	7 일	제일기획	11 일
한국금융지주	7 일	하나금융지주	10 일
대한통운	5 일	대우증권	9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10 일	동서	13 일
GS홈쇼핑	6 일	JW중외신약	8 일
신화인터텍	5 일	성광벤드	7 일
하나투어	4 일	SK브로드밴드	6 일
다산네트웍스	4 일	젠타	6 일
에스엠	4 일	한국정밀기계	6 일
평화정공	4 일	씨젠	5 일
포스코 ICT	3 일	CJ E&M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중공업	170,063	기아차	158,523
현대모비스	146,264	하이닉스	143,583
하이닉스	101,422	현대차	132,803
삼성중공업	77,102	삼성전자	86,075
기업은행	57,437	LG생활건강	46,176
기아차	54,150	삼성전기	43,990
삼성엔지니어링	49,663	한국전력	39,577
한진해운	40,110	LG디스플레이	35,794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스엠	6,309	성광벤드	11,788
하나마이크론	5,588	실리콘웍스	10,106
태광	5,385	다음	8,250
평화정공	4,306	안철수연구소	5,342
와이솔	4,110	영풍정밀	3,600
에스에프에이	3,959	씨젠	3,569
성광벤드	3,853	셀트리온	3,289
휴비츠	3,014	네오위즈게임즈	2,691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비금속광물	-806	-267	-1,074
통신업	-363	-2,997	-3,360
섬유,의복	-1,571	-2,710	-4,281
SK C&C	38	3,063	3,100
메리츠화재	733	1,140	1,874
현대차우	325	1,272	1,597
SKC	507	976	1,483
STX엔진	1,162	290	1,452
현대해상	1,175	129	1,304
키움증권	50	1,190	1,239
제일기획	673	502	1,175
현대증권	81	779	861
대덕GDS	512	184	696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출판,매체 복제	4,622	229	4,850
제약	479	1,900	2,379
금속	1,549	284	1,833
에스엠	4,050	331	4,381
성광벤드	1,141	1,749	2,890
신화인터텍	1,325	275	1,600
태광	845	66	911
씨젠	626	270	896
메가스터디	134	621	755
성우하이텍	98	568	665
매일유업	363	135	498
모두투어	485	10	495
하이록코리아	282	153	43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카드	19 일	호남석유	10 일
넥센타이어	14 일	KPX화인케미칼	10 일
쌍용양회	11 일	일진전기	9 일
삼성전기	11 일	KT&G	8 일
베이직하우스	9 일	휴켄스	8 일
BS금융지주	9 일	락앤락	8 일
오리온	8 일	동국제강	7 일
GS건설	8 일	영풍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OCI머티리얼즈	20 일	우주일렉트로	14 일
파트론	10 일	원익IPS	7 일
셀트리온	9 일	주성엔지니어링	7 일
현진소재	7 일	쌍용건설	5 일
다음	6 일	GS홈쇼핑	5 일
인터파크	5 일	차바이오텐	5 일
AP시스템	5 일	코미팜	4 일
테크노세미켄	4 일	오스템임플란트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LG디스플레이	-73,244	호남석유	-65,199
삼성증권	-60,841	KT&G	-55,508
삼성전기	-59,391	기업은행	-44,629
한국전력	-55,066	신한지주	-37,360
LG화학	-54,583	LG전자	-34,722
삼성화재	-52,342	SK이노베이션	-29,848
GS건설	-33,621	강원랜드	-27,537
OCI	-32,008	S-Oil	-26,924

KOSDAQ			
기	관	외	국 인
다음	-32,585	SSCP	-6,340
셀트리온	-21,496	서울반도체	-3,469
OCI머티리얼즈	-12,498	주성엔지니어링	-3,209
인프라웨어	-11,244	CJ오쇼핑	-2,510
실리콘웍스	-8,240	원익IPS	-2,489
네오위즈게임즈	-6,900	GS홈쇼핑	-1,965
인터플렉스	-5,020	에이블씨엔씨	-1,780
CJ E&M	-4,615	차바이오텐	-1,726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61,280	-23,163	-84,442
화학	-43,477	-8,300	-51,777
유통업	-34,457	-840	-35,297
현대중공업	-823	-35,784	-36,608
하이닉스	-12,907	-20,003	-32,910
LG화학	-16,151	-12,541	-28,692
POSCO	-2,633	-19,173	-21,806
강원랜드	-3,355	-13,406	-16,761
삼성화재	-6,485	-6,654	-13,139
GS	-3,744	-9,095	-12,838
대우조선해양	-10,817	-1,373	-12,191
SK이노베이션	-3,635	-7,075	-10,710
만도	-380	-8,960	-9,340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9,358	-2,631	-11,989
IT부품	-6,466	-638	-7,104
디지털컨텐츠	-763	-1,959	-2,722
OCI머티리얼즈	-3,541	-2,354	-5,895
CJ오쇼핑	-609	-1,955	-2,564
인터플렉스	-1,827	-74	-1,901
네패스	-824	-838	-1,661
웰크론	-1,211	-320	-1,530
에이블씨엔씨	-8	-1,226	-1,235
알에프세미	-968	-41	-1,009
메디포스트	-105	-899	-1,004
후너스	-974	-18	-992
STS반도체	-214	-729	-94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OCI	33	8,682
호남석유	24	8,312
LG화학	20	7,883
현대차	24	5,367
하이닉스	176	5,290
LG전자	61	5,130
현대산업	129	3,245
POSCO	7	3,06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30	1,057
원익IPS	73	687
CJ오쇼핑	2	591
에스엠	11	578
서울반도체	22	570
케이엘넷	133	451
메가스터디	3	330
네오위즈게임즈	7	306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056	3,588,109
POSCO	7,282	3,072,958
OCI	6,891	1,788,213
LG전자	19,713	1,667,688
현대차	4,752	1,045,398
하이닉스	30,276	909,795
삼성전기	6,770	631,668
현대중공업	1,852	627,83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7,348	608,048
서울반도체	6,207	156,411
덕산하이메탈	2,131	57,536
원익IPS	4,383	40,541
멜파스	1,424	36,169
크루셜텍	2,430	35,724
차바이오앤	3,200	35,680
네오위즈게임즈	840	34,259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전기,전자	4,528	운수창고	-3,323
운수장비	1,618	통신업	-2,709
종이,목재	1,422	유통업	-819
LG전자	3,988	LG유플러스	-2,307
하이닉스	2,099	아시아나항공	-2,093
동부제철	1,286	한화케미칼	-1,786
무림P&P	1,202	LG디스플레이	-1,160
현대산업	813	하나금융지주	-657
우리금융	740	한국전력	-630
STX조선해양	729	현대상선	-609
금호타이어	726	동부하이텍	-546
락앤락	581	SK네트웍스	-515
현대차	561	한국타이어	-50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반도체	1,523	미분류	-271
소프트웨어	638	출판,매체복제	-131
IT부품	545	금속	-125
원익IPS	709	성용광전투자	-271
포스코 ICT	579	인터파크	-141
유비케어	564	하이셀	-131
파라다이스	528	에스엠	-131
서희건설	489	태광	-92
셀트리온	480	하이록코리아	-40
차바이오앤	322	삼우이엠씨	-40
서울반도체	276	삼우이엠씨	-40
STS반도체	204	3S	-27
크루셜텍	195	바이오스페이스	-23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2/28(화)	02/29(수)	03/02(금)	03/05(월)	03/06(화)
외국인	10,607.4	88.2	537.4	-79.6	517.3	371.3	-47.7	-233.5
기관계	-2,631.6	-248.3	113.3	202.2	173.1	14.1	-153.7	-110.4
(투신)	-3,000.0	-235.2	0.7	166.1	77.4	-73.2	-127.4	-34.6
(연기금)	-1,416.4	-133.5	-48.1	-3.2	91.9	37.5	-26.7	-146.1
(은행)	266.3	-13.1	5.5	13.0	5.6	4.8	-17.4	-0.5
(보험)	575.6	75.3	110.2	8.2	22.5	49.7	5.2	20.5
개인	-6,674.4	256.6	-430.2	-161.5	-527.0	-314.4	272.1	298.8
기타	-1,301.4	-96.5	-220.6	38.9	-163.3	-71.0	-70.7	45.2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2/27(월)	02/28(화)	02/29(수)	03/02(금)	03/05(월)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91.16	2,003.69	2,030.25	2,034.63	2,016.06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9806.7	20225.7	19915.4	19621.6	19558.8
(증감액)	2735.7	1996.5	3611.7	-0.3	419.0	-310.3	-293.8	-62.8
(회전율)	52.6	51.5	34.2	39.8	43.6	46.7	40.3	36.8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195.8	336.4	-39.6	-487.0	-780.7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5066.9	5062.0	5061.8	5076.9	5052.6
미수금	240.2	192.3	187.7	174.6	146.0	180.4	164.4	399.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2/27(월)	02/28(화)	02/29(수)	03/02(금)	03/05(월)
전체 주식형	99,769	-4,855	-454	-89	101	1	-220	-234
(ex. ETF)		-5,530	-398	-89	95	2	-208	-190
국내 주식형	69,243	-4,106	-413	-66	116	18	-202	-211
(ex. ETF)		-4,787	-356	-66	111	19	-190	-166
해외 주식형	30,526	-749	-42	-23	-15	-18	-19	-23
(ex. ETF)		-743	-42	-23	-15	-18	-19	-23
주식 혼합형	11,984	-174	0	12	-27	24	-4	4
채권 혼합형	18,371	-18	-63	-5	-126	0	-10	-52
채권형	44,678	-729	169	-133	-180	-106	52	117
MMF	61,517	8,166	3,663	-2,750	-4,467	-3,100	-526	4,18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2/29(수)	03/01(목)	03/02(금)	03/05(월)	03/06(화)
한 국	8,940	5,509	561	473	—	331	-43	-201
대 만	3,233	1,717	581	637	140	61	-150	-45
인 도	5,492	2,183	311	133	56	122	—	—
인도네시아	111	271	269	190	-2	64	17	0
태국	1,389	96	358	113	83	101	60	—
남아공	-1,187	-851	249	100	12	97	40	—
필리핀	486	366	67	23	16	12	8	7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02/27(월)	02/28(화)	02/29(수)	03/02(금)	03/05(월)	03/06(화)
회사채 (AA-)	4.21	4.25	4.23	4.26	4.29	4.32	4.31
회사채 (BBB-)	10.01	10.00	9.99	10.01	10.03	10.06	10.05
국고채 (3년)	3.34	3.44	3.42	3.45	3.48	3.51	3.50
국고채 (5년)	3.46	3.55	3.53	3.55	3.58	3.61	3.61
국고채 (10년)	3.79	3.82	3.80	3.82	3.85	3.88	3.88
미 국채 (10년)	1.88	1.93	1.94	2.03	1.97	2.01	—
일 국채 (10년)	0.99	0.98	0.97	0.96	0.99	0.99	—
원/달러	1,151.80	1,129.10	1,124.50	1,118.70	1,115.50	1,118.50	1,122.90
원/엔	1,492.00	1,407.00	1,399.00	1,378.00	1,366.00	1,373.00	1,381.00
엔/달러	77.24	80.25	80.43	81.19	81.67	81.46	81.35
달러/유로	1.29	1.33	1.34	1.33	1.32	1.32	1.32
DDR3 1Gb (1333MHz)	0.64	0.68	0.70	0.71	0.71	0.71	—
NAND Flash 16Gb (MLC)	2.81	2.42	2.40	2.41	2.41	2.40	—
CRB 지수	305.30	325.09	323.12	324.32	321.17	319.45	—
LME 지수	3,306.0	3,739.5	3,751.9	3,751.5	3,733.1	3,682.1	—
BDI	1,738	732	738	763	771	782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108.56	106.55	108.84	106.70	106.72	—
금 (달러/온스)	1,566.80	1,774.90	1,788.40	1,722.20	1,709.80	1,703.9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203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2월 28일	263.45	264.65	0.23	1.20	0.91	189,109	121,633	3,457
2월 29일	267.13	267.25	0.21	0.12	0.68	222,065	124,243	2,610
3월 2일	267.45	267.95	0.16	0.50	0.47	182,377	120,760	-3,483
3월 5일	264.75	265.20	0.08	0.45	0.21	208,327	110,710	-10,050
3월 6일	262.85	262.80	0.08	-0.05	0.30	295,822	90,346	-20,364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2월 28일	6,430	-4,061	-2,531	-3,037	685	-198	-67	63
2월 29일	-71	-767	-560	-651	-522	531	125	-15
3월 2일	406	-44	-203	603	-973	-35	286	-50
3월 5일	-5,390	3,670	1,793	2,240	-758	72	216	-4
3월 6일	-3,351	3,071	1,185	687	611	34	-123	-7
누적포지션	-13,558	14,083	1,338	-1,014	-567	-183	3,185	-129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2월 28일	755	822	67	656	679	23	99	143	44	6,206	8,345
2월 29일	1,086	1,089	3	907	1,054	147	179	35	-144	6,248	8,247
3월 2일	863	805	-58	772	724	-47	91	80	-11	6,245	8,235
3월 5일	815	569	-247	574	501	-72	242	67	-174	6,290	8,105
3월 6일	962	798	-164	807	594	-213	155	204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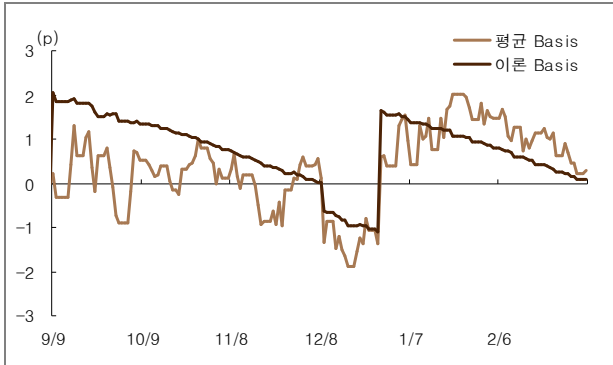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28.69	20,775	173,725	0.01	277.50	14.80	335	-120	45.22
24.40	-3,118	470,786	0.01	275.00	11.90	3,016	-261	5.00
23.12	9,368	681,027	0.03	272.50	9.70	7,343	283	28.43
22.81	24,296	1,365,539	0.11	270.00	7.05	47,805	-1,991	5.00
22.94	37,219	1,903,345	0.36	267.50	5.00	184,593	-3,231	23.81
22.93	53,039	1,841,600	0.93	265.00	2.99	948,919	2,516	22.36
23.76	29,041	958,990	2.05	262.50	1.65	2,156,782	2,977	23.76
26.29	11,972	143,317	3.80	260.00	0.87	1,696,048	-9,139	25.82
24.62	1,514	35,210	5.70	257.50	0.40	1,134,581	-843	26.95
25.11	317	5,220	8.00	255.00	0.21	681,335	2,164	29.55
18.74	167	845	10.40	252.50	0.10	473,618	30,356	3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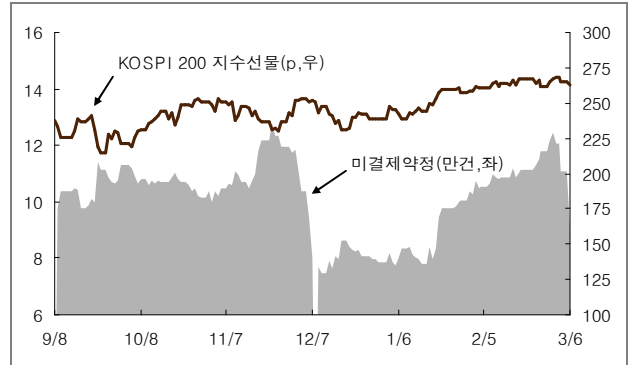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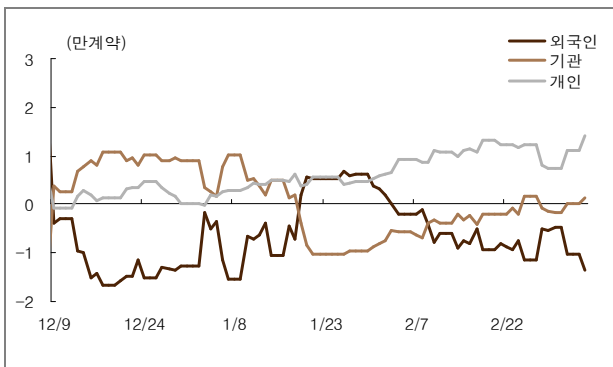
- 평균 Basis: 0.30 (전 거래일 대비 0.09 상승)
- 이론 Basis: 0.08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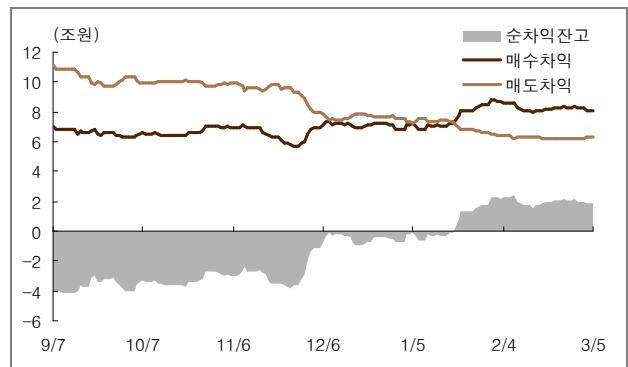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20,364 계약 감소한 90,346 계약
- 선물가격(262.80): 전 거래일 대비 2.40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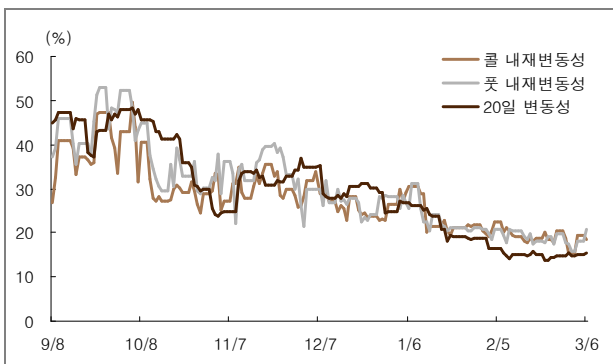
- 외국인: 3,351 계약 순매도
- 기관: 1,185 계약 순매수 / 개인: 3,071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491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2,130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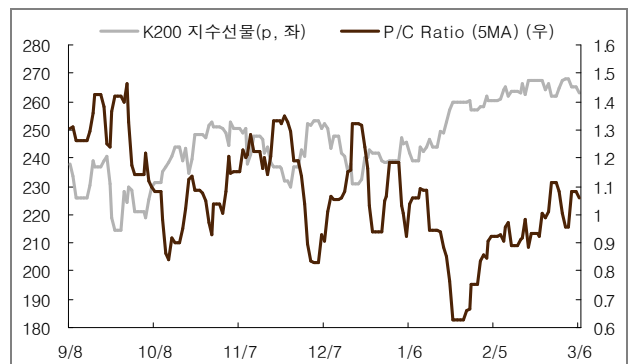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8.3% / 풋 20.9%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5.46%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3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06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7	28	29	1	2
유럽> EU 외무장관 회의 이탈리아/독일/프랑스 국제 입찰 2월 28일 소비자대지수 (-20.3, -20.2, -20.2) 이탈리아 국제 입찰	美> 1월 미경주대지수 MoM (2.0%, 1.0%, -3.5%) 1월 내구재 주문 MoM (-4.0%, -1.0%, 3.0%) 12월 S&P/CS 20개 도시 MoM SA (-0.50%, -0.35%, -0.70%) 유럽> 2월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20.3, -20.2, -20.2) 이탈리아 국제 입찰	韓> 1월 산업생산 YoY (-2.0%, -4.6%, 2.8%) 1월 경기종합선행지수 (138.7, n/a, 137.7)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0.3%, n/a, -4.5%) 2월 소비자대지수 (70.8, 63.0, 61.1) 4Q GDP QoQ (연간화) (3.0%, 2.8%, 2.8%) 유럽> 1월 유로권 CPI YoY (2.6%, 2.7%, 2.7%) 독일 국제 입찰 2차 LTRO 日> 1월 산업생산 YoY (-1.2%, -1.6%, -4.3%) 1월 자동차생산 YoY (18.6%, n/a, 13.4%)	韓> 2월 무역-수출 YoY (22.7%, 16.4%, -6.6%) 2월 무역-수입 YoY (23.6%, 20.9%, 3.6%)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5.1만, 35.5만, 35.1만) 유럽> 2월 PMI 제조업 (49.0, 49.0, 49.0) 1월 유로권 실업률 (10.7%, 10.4%, 10.4%) 中> 2월 PMI 제조업 (51.0, 50.9, 50.5) 2월 HSBC 제조업 PMI (49.6, n/a, 48.8)	韓> 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1%, 3.1%, 3.4%) 美> 2월 ISM 제조업지수 (52.4, 54.5, 54.1) 2월 ISM 구매물가지수 (61.5, 58.0, 55.5) 中> (3/3) 2월 중국 비제조업 PMI (48.4, n/a, 52.9) 日> 2월 통화공급-은행통화 YoY (11.3%, n/a, 15.0%)
5	6	7	8	9
韓> 2월 외환보유액 (\$315.80B, n/a, \$311.34B) 유럽> 1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0.0%, -1.5%, -1.6%) 1월 PMI 서비스 (48.8, 49.4, 49.4) 3월 섀넥스 투자자대지수 (-8.2, -5.0, -11.1) 中> 2월 HSBC 서비스 PMI (53.9, n/a, 52.5) 실적발표> 韓 에이블씨엔씨	美> 2월 ISM 비제조업지수 (57.3, 56.2, 56.8) 1월 제조업 수주 MoM (-1.0%, -1.5%, 1.1%) 유럽> 4Q 유로권 GDP YoY SA (n/a, 0.7%, 0.7%) 실적발표> 韓 고려아연	韓> 2월 은행가계대출 (n/a, n/a, 452.2T)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0.3%) 2월 ADP 취업자 변동 (n/a, 21.3만, 17.0만)	韓>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 (n/a, 3.25%, 3.25%)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5.1만, 35.3만) 1월 소비자 신용지수 (n/a, \$11.00B, \$19.31B) 유럽> ECB 금리 공시 (n/a, 1.00%, 1.00%) BOE 금리 공시 (n/a, 0.50%, 0.50%) 日> 4Q 명목 GDP QoQ (n/a, -0.3%, -0.8%)	韓> 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n/a, 3.4%) 美> 1월 무역수지 (n/a, -\$49.0B, -\$48.8B) 2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n/a, 21.0만, 24.3만) 2월 실업률 (n/a, 8.3%, 8.3%) 유럽> EU 외무장관 회의 (미확정) 中> 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0.1%, 0.7%) 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3.4%, 4.5%) (3/10) 2월 무역수지 (n/a, -\$5.30B, -\$27.28B) (3/10) 2월 무역-수출 YoY (n/a, 32.9%, -0.5%) (3/10) 2월 무역-수입 YoY (n/a, 30.5%, -15.3%)
12	13	14	15	16
유럽> 유로권 재무장관 회의 中> (3/11) 2월 신규 위안 대출 (미확정) (3/11) 2월 통화공급-M2 YoY (미확정) 日> 1월 기계수주 YoY 2월 소비자대지수	美> 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2월 소매판매액 지수 MoM 3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유럽> EU 재무장관 회의 日> BOJ 정책금리 결정	韓> 2월 실업률 美> 2월 수입물가지수 YoY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4분기 경상수지 FOMC 금리결정 유럽> 1월 유로권 CPI YoY 中> 2월 실제 FDI YoY (미확정) 日> 1월 산업생산 YoY 2월 공업기계 수주 YoY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3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유럽> 4Q 유로권 고용 YoY	韓> 2월 수출물가지수 YoY 2월 수입물가지수 YoY (3/17) 2월 백화점매출 YoY (미확정) (3/17) 2월 할인점매출 YoY (미확정) 美> 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2월 산업생산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